

2022년 01월 0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요한일서 1장 1~10절(신약p.388)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 ◎ 말씀선포 / 하나님과 우리의 사귄

소망의 한해를 시작하며 오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응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빛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귄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들은 무엇보다,

1.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는 놀라운 광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근본이시며 도덕적으로도 조금의 흠이 없는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6-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 했습니다. 아담이후에 범죄한 인생은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빛을 피하여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부정과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됨으로 죄인의 속성은 빛을 부정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곳ियो, 우리 또한 죄의 본능으로 계속 어두움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의 충만함이 깨지고 친밀한 관계의 기쁨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훼방하는 죄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누릴 영적 축복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나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님 앞에 나오심을 통해 죄인 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2022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 참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된 성도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에게도 바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고 하였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카다쉬”로서 이는 “깨끗하다, 구별하다.” 이 뜻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의 “거룩”은 특별히 “카도쉬”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옳고 진실 된 것을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로 구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의 “거룩”은 “하기오스”로서 사실은 이 뜻은 권세 자를 두려워함으로 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조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영적 긴장과 고됨이 부담되고 힘들게 여김으로 자신의 생각과 혹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타협하는 것 역시 은혜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귄 안에 있다면 성도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불 경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와 경건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삭이는 모든 악한 자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과의 사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사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하며, 아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죄인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과 사귀는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를 맛볼 것이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더욱 풍성해 짐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이끄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15(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 폐 회 / 주기도문